

위로와 확신의 근거 - 하나님의 예정:

16세기말 하이델베르그 신학자들과
도르트신조의 예정론을 중심으로*

Die Grundlage für Trost und Gewissheit – praedestinatio Dei:
die Prädestinationslehre der Heidelberger Theologen im
16. Jahrhundert und des Dordrechter Canones

이남규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조직신학)



개혁신학의 예정론교리가 처음과 나중에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 처음에는 ‘아래로부터’(a posteriori)의 방식이었다면 나중에 ‘위로부터’(a priori)의 방식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방식이란 결과들에서 근원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더 실천적이다. 위로부터의 방식은 근원에서 결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더 이론적이다. 즉 개혁신학의 예정론의 시작은 실천적이었으나 나중에 이론적으로 변했고 그 전환점이 도르트 신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방식에는 세 가지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논문은 주장한다. 첫째, 선택은 실제적으로 위로부터이다. 둘째, 선택과 구원의 확신은 아래로부터 얻어진다. 셋째, 예정론을 다루는 것과 관련해서 두 방식이 다 유효하다. 이런 세 가지 구분을 통해서 볼 때 도르트신조는 예정론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이 논문은 시험해본다.

이 사실의 확인을 위해서 칼빈과 도르트신학자들 사이를 이어주는 신학자

들의 입장을 하이델베르그 신학자들을 택해서 살펴본다. 16세기 말의 하이델베르그 신학자들은 이 목적을 위해 합당한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 하이델베르그대학의 중요성이 그것을 말해주며, 도르트회의에서 하이델베르그 신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초기 정통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불리는 16세기 말의 하이델베르그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개혁신학의 전통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위로와 확신의 근거로서 이해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정론의 이런 이해가 하이델베르그 신학자들을 고리로 해서 도르트신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 하이델베르그, 도르트신조, 예정론, 위로

예정론은 성경에 철저히 근거한 것으로서 신자들을 위로하며 구원과 선택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세우는 교리인가, 아니면 사변적인 것인가? 몇몇 학자들은 전자의 시각을 인정하면서도 개혁신학의 예정론이 칼빈 이후 목회적이며 실천적인 면에서부터 멀어져서 17세기 이후에는 사변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는 주장을 하곤 하였다. 17세기 이후로 예정론이 사변화되었다는 중요한 증거로 17세기 초에 있었던 도르트회의가 말해지곤 한다. 17세기 이전과 이후를 불연속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려는 시각에서 종종 언급되는 주장은 도르트신조는 칼빈이 구현했던 구원론적이며 교회론적인 시각에서 이해했던 예정론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위의 주장을 하는 중요한 학자들로 독일의 교리사 학자인 하인리히 헤페(Heinrich Heppe, 1820~1879)와 라인홀트 제베르그(Reinhold Seeberg, 1859~1935)가 있다. 헤페의 경우 독일개혁신학의 예정론이 ‘아래로부터’(a posteriori)의 방식에서 칼빈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위로부터’(a priori)의 방식으로 변했다고 주장한다. 제베르그는 도르트회의의 의미를 개혁신학의 예정론 이해의 초기방식이 ‘아래로부터’의 방식이 ‘위로부터’의 방식으로 변한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위 두 학자는 ‘위로부터’의 방식과 ‘아래로부터’의 방식이란 개념을 너무 단순히 이해했고, 따라서 개혁신학의 흐름을 오해한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예정론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개념인 ‘위로부터(a priori)’의 방식과 ‘아래로부터의(a posteriori)’ 방식을 고찰함으로써 그런 종류의 오해를 드러내려고 한다.¹ 이 논문은 최종적으로 예정론 이해의 이 두 개념—a priori와 a posteriori—을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함을 주장하며, 그런 방식으로 이해했을 때 개혁주의 신학의 흐름에서 도르트회의를 통해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 사실의 확인을 위해서 칼빈 이후 도르트신학자들 사이를 이어주는 신학자들의 입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6세기 말의 하이델베르그 신학자들은 이 목적을 위해 합당한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 하이델베르그대학의 중요성이 그것을 말해주며,² 도르트회의에서 하이델베르그 신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³ 초기 정통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불리는 16세기 말의 하이델베르그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개혁신학의 전통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위로와 확신의 근거로서 이해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정론의 이런 이해가 하이델베르그 신학자들을 고리로 해서 도르트신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¹ 이 점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짧게 지적한 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좀 더 상세히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참고: Nam Kyu Lee, *Die Prädestinationslehre der Heidelberger Theologen 1583-162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9), 59-61, 193.

² 1559년에서 1620년까지 제네바 아카데미에는 2741명의 학생이 하이델베르그에는 8,754명이 등록했다는 것은 하이델베르그의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Krarin Maaag, *Seminary or University?* (Aldershot: Scholar Press, 1995), 165.

³ 하이델베르그 교수였던 다비드 파레우스(David Pareus)의 예를 들 수 있다. 그는 많은 나이로 인해 여행이 힘들어 도르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그가 보낸 판단문이 다른 모든 지역 총대들의 판단문 앞서 낭독되어졌다.

1. 하이델베르그의 16세기 후기의 예정론의 위치

16세기 후반 하이델베르그는 신앙고백에 있어서 여러 번의 변화를 겪었다. 먼저 1556년 오토하인리히(Ottheinrich) 아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공식적인 교회법은 루터주의의 것을 따랐다. 오토하인리히에게 아직 개혁주의와 루터주의의 엄밀한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루터주의신학자들을 초빙하였다. 이 둘 사이에 갈등이 폭발하기 직전 1559년 오토하인리히가 죽고 프리드리히(Friedrich) 3세가 뒤를 이었다. 프리드리히 3세가 개혁주의와 루터주의의 논쟁 속에서 개혁주의로 방향을 정했을 때, 루터주의 신학자들은 하이델베르그를 떠나야만 했다. 그 후 1576년 프리드리히 3세가 죽자 그의 아들 루드비히(Ludwig) 6세가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루터주의를 따르면서 개혁신학자들을 내보낸다. 그런데 1583년 루드비히 6세가 죽자 어린 조카를 대리하여 요한 카시미르가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부터 가톨릭교회에 정복되는 1622년까지 하이델베르그는 개혁신학을 가르치게 된다. 이렇게 중요한 4번의 변화, 즉 로마 가톨릭에서 루터주의로(1556년), 루터주의에서 개혁주의로(1559년), 개혁주의에서 루터주의로(1576년), 루터주의에서 개혁주의로(1583년) 변화를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주의와 루터주의 사이의 갈등과 긴장은 계속되면서 성만찬론과 예정론에 관한 논쟁은 계속되어 갔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예정교리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이곳에서 예정교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아보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다. 하이델베르그 개혁신학이 가장 처음 예정론에 있어서 자기 입장을 나타낸 것은 1561년부터 1563년까지 있었던 슈트라스부르크의 논쟁에서였다. 이 논쟁은 하이델베르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이었다. 1559년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개혁신학으로 노선을 정하면서 루터주의 신학자 티레만 헤스후스(Tilemann Heshus, 1527~1588)는 하이델베르그를 떠나야만 했다. 그 이후 그는 개혁신학자들과 하이델베르그 신학자들을 비판하는 책을 출판한다.⁴ 여기에 성만찬뿐 아니라 예정

론도 포함했기 때문에 베자는 예정교리에 대해서 변호해야만 했다.⁵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요한 마르바흐(Johann Marbach)가 헤스후스의 이 책을 출판해서 판매하려고 했을 때, 쟁키우스는 교리와 프리드리히 3세의 명예를 위해서 이 책의 판매금지를 관철시킨다. 루터주의 신학자들과 쟁키우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논쟁은 성만찬뿐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종말, 그리고 성도들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것으로 확장되었다. 쟁키우스는 영생으로 선택된 자들의 수와 유기된 자들의 수가 하나님께 정해져 있다는 예정교리를 주장한다.⁶ 이 논쟁 중에 쟁키우스는 마부룩과 하이델베르크와 샤프하우젠과 취리히와 바젤로부터 자기를 지지하는 판단문을 받았는데, 하이델베르크의 신학자들은 쟁키우스의 논지가 경건하다고 하면서 그의 의견에 동조하였다.⁷ 쟁키우스는 슈트라스부르크를 떠났고, 몇 년 후에 하이델베르크의 교수로 오게 된다. 이런 사실들은 처음부터 하이델베르크 개혁신학은 예정교리에 있어서 이중예정교리를 받는 전통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이델베르크 신학자들이 예정론을 받아들이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루터주의와 심한 논쟁을 하는 분위기는 아직 아니었다. 15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하이델베르크 신학자들과 루터주의 신학자들 사이에 예정교리에 대한 논쟁이 타오르면서 하이델베르크 신학자들의 예정론에 논쟁적인 성격이 더욱 강화된다. 이 싸움의 시작은 1586년 3월에 있었던 개혁신학자 베자(Theodor Beza)와 루터주의신학자 안드레애(Andrä) 사이의 뫼펠가르트(Mömpelgard)의 토론에서 시작한다. 이 토론에 베른의 대표자로 무스쿨루스(Abraham Musculus)와 휘브너(Petrus Hübner)가 참여했다. 이들은 베자의 의견에 찬성하는 서명을 했다. 그런데 베른 근교의 목사였던 후버(Samuel

⁴ Tileman Heshus, *De praesentia corporis Christi in Coena Domini* (Jena: Ritzenhain, 1560).

⁵ A. Schweizer, *Die protestantischen Centraldogmen in ihrer Entwicklung innerhalb der reformirten Kirche I* (Zürich: Fuessli und Comp, 1854), 401.

⁶ Zanchii, *Opp. Theol.* VII. 63: “영생으로 선택된 자들의 수와 유기된 자들의 또는 멸망으로 예정된 자들의 수는 하나님께 확실하다.”(Certus est apud Deum, tum electorum ad vitam aeternam, tum reprobatorum & ad interitum praedestinatorum numerus).

⁷ Zanchii, *Opp. Theol.* VII., 69-72.

Huber)는 이 서명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고 베른은 예정론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결국 공적 논쟁을 통해서 무스쿨루스가 승리하고 후버는 베른에서 쫓겨났다.

후버는 그 후 튀빙겐 근교에서 목회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하이델베르크 신학자들을 비판하였다. 그의 대표작으로 불릴 만한 1590년에 출판한 “논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Theses, Jesum Christum esse mortuum pro peccatis omnium hominum)에서 하이델베르크의 제일교수 즉 신약교수였던 다니엘 토사누스(Daniel Tossamus)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판하였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 격한 논쟁이 출판물을 통해 진행된다. 그러는 중에 하이델베르크의 교리학교수였던 야콥 키메돈키우스(Jacob Kimedoncius)가 토사누스를 변호하면서 사무엘 후버를 비판하자, 후버는 키메돈키우스를 비판하는 책 “논제,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 키메돈키우스의 논제들에 반박을 추가한다.”(Theses, Christum Jesum mortuum pro peccatis totius humani generis … accessit quoque confutatio Thesium kimedoncii, 1592)를 내놓는다. 후에 후버의 의견은 극단적이어서 다른 루터주의 신학자인 후니우스(Aegidius Hunnius)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하이델베르크 신학자들은 미리 보여진 믿음으로 (praevisa fide)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는 후니우스(Aegidius Hunnius)도 비판하였다. 이렇게 루터주의 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신학자들은 예정교리를 변호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여러 책을 출판하였고, 거기서 개혁신학의 예정론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2. 위로와 확신의 근거인 하나님의 예정

예정교리를 위로와 확신과 연결시킨 대표적인 신학자는 헤르만 렌네헤루스(Herman Rennecherus)⁸이다. 그의 주저는 1589년에 내놓은 『구원의 황

⁸ 1550년 오스나부르크에서 태어나 1567년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했다. 1575년 설립된 레이

금사슬』(*Aurea Salutis Catena*)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1597년에 재판되었다. 렌네헤루스의 황금사슬은 윌리엄 퍼킨스의 『황금사슬』(*Armillae Aureae*)의 대한 대륙판 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⁹ 그의 작품은 퍼킨스의 것보다 한 해 앞서 나왔으므로 퍼킨스로부터 독립적이다.

렌네헤루스가 소개하는 구원의 황금사슬이란 부서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슬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따라서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다섯 가지 고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중 하나라도 받은 자는 나머지를 다 받게 될 것이다.¹⁰ 신자는 아직 받지 않은 것도 이제 받을 것으로서 소망할 수 있다. 구원의 황금사슬의 이런 이해는 구원의 확신과 위로의 기초가 된다. 렌네헤루스는 바울이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사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¹

렌네헤루스는 선택의 특징들을 논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강조한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 먼저 선택이 영원한 작정(*decretum aeternum*)이라는 것이다.¹²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었던 영원이라는 영역이 의미하는 것은 시간 속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영원이라는 영역을 사단과 인간의 능력이 다다를 수 없고, 따라서 시간 속에 있는 사단의 시험과 택자들의 약함이 구원을 방해할 수 없다. 또 선택은 자비롭고 값없는 작정(*misericors et gratuitum*)이다. “이 하나님의 자비위에 모든 신자들의 소망과 위로가 기초해 있다.”¹³ 렌네헤루스는 직

든대학에서 짧은 기간 히브리어 교수로 봉사했다. 1594년부터 하이델베르크에서 히브리어교수로 제직한다.

⁹ G. Adam, *Der Streit um die Prädestination im ausgehenden 16. Jahrhundert, Eine Untersuchung zu den Entwürfen von Samuel Huber und Aegidius Hunnius* (Neukirchen-Vluyn, 1970), 138: “Diese Veröffentlichung bildet das kontinentale Gegenstück zu der *Armillae aureae* des Engländer William Perkins ...”.

¹⁰ Herman Rennecherus, *Aurea Salutis Catena* (Herborn: Christoph Corvin, 1589), 272-73.

¹¹ Rennecherus, *Catena*, 9: “Primo hic sciendum est, quod. S. Paulo propositum fuerit, ut fideles firmiter consolaretur & in bonam spem erigeret.”

¹² Rennecherus, *Catena*, 43.

¹³ Rennecherus, *Catena*, 63: “In hac Dei misericordia omnium fidelium spes et consolatio est fundata.”

접적으로 이 선택이 위로의 작정(*consolatorium decretum*)이라고 말한다. 렌네헤루스는 묻는다. “값없는 선택의 교리나 지식 외에 무엇으로 너는 비참하고 슬픈 인간을 회복하게 하고 가장 좋은 소망을 향하게 하며 위로할 수 있느냐?”¹⁴

1589년부터 교리학교수로서 가르치기 시작한 야콥 키메돈키우스(Jacob Kimedoncius)¹⁵도 하나님의 예정이 주는 위로와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는 “루터주의자들이 과연 루터를 따르는가?”라고 물으면서 오히려 하이델베르크 신학자들이 루터의 편에 있다고 주장했다. 키메돈키우스는 루터의 노예의지론을 주석을 달아 다시 출판하기도 하였다. 키메돈키우스의 가장 중요한 작품은 『인류의 구속에 대하여』(*De redemptione generis humani*)이다. 이 책은 무려 800쪽의 분량을 가진 책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위 책에서 키메돈키우스는 예정의 불변이 모든 위로와 구원의 가장 참된 기초라고 하였다.¹⁶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이 확실히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이것을 말한다.¹⁷ 키메돈키우스는 특히 선택의 확신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면서 로마 가톨릭의 입장을 비판했다. 로마가톨릭은 선택과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 키메돈키우스는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교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심의 교리’(*doctrina dubitationis de gratia Dei*)라고 부른다. 그에게 선택의 확신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다.¹⁸ 키메돈키우스는 선택의 확신과 위로를 묶는다.

¹⁴ Rennecherusn, *Catena*, 102: “[...] quid enim hominem miserum et tristem ita recreare, et in optimam spem erigere, atque consolari poteris, quam gratuita electionis doctrina et cognitio?” (Ebd. 102).

¹⁵ 1554년 현재 독일 지역의 Kempen에서 태어나서 1568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들어갔고 1573년에 이미 사피엔스 콜레기움(Collegium Sapientiae)에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를 도와서 사역하였다.

¹⁶ Jacob Kimedoncius, *De redemptione generis humani* (Heidelberg: Smesmannus, 1592), 669: “... hoc est verissimum omnis consolationis, & salutis fundamentum, & velut basis ...”.

¹⁷ Kimedoncius, *De redemptione*, 669: “Certe ad consolationem nostram hoc dicit scriptura, ne turbemur.”

¹⁸ Kimedoncius, *De redemptione*, 686.

이 썩어져가는 것 안에서 곧 이 세대의 귀양살이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더 확신 있게 되는 방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럴 때 우리가 영생을 위해 선택된 것을 알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결론된다. 구원이 택자들에게 있다면, 확실히 그 확실성이 구원의 샘이요 근원이요 기초인 신적 선택의 확신없이 있을 수 없다.¹⁹

후버와 많은 논쟁을 하였던 다니엘 토사누스(Daniel Tossanus)²⁰도 똑같이 위로와 확신을 강조하였다. 사무엘 후버는 칼빈주의 신앙 안에서는 어떤 위로를 찾을 수 없다고 하이델베르크 신학자들을 비판하였다. 그의 책 ‘기초적인 증명’(Gründliche Beweisung)의 마지막에 큰 그림 한 장을 추가시켰다. 이 그림에 절망적으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그리스도인 옆에 칼빈이 서 있다. 후버는 토사누스를 칼빈주의 교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지목하였다. 후버의 핵심 주장은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부정하여서 복음의 위로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하였다.²¹ 토사누스는 처음엔 침묵했으나 얼마 후에 설교를 통하여서 대답하였다. “너 시온의 딸아 기뻐하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온다”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본문삼아서 “주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가”(wem der Herr Christus zu gut in die Welt kommen sey)

¹⁹ Kimerdoncius, *De redemptione*, 698: “Fixum igitur maneat, dum in hac mortalitate, & tanquam exilio huius seculi vivitur, viam & rationem nobis non deesse, qua ad nostril consolationem de salute nostra fiamus certiores. Hoc vero stante, necessario consequitur, quod electionem quoque nostri ad vitam aeternam cognitam exploratamque habere possumus. Nam cum salus tantum electorum sit, eius profecto certitudo constare nequit sine certitudine divinae electionis, quae salutis fons, origo & fundamentum est.”

²⁰ 1541년 뮐펠가르트(Mömpelgard)에서 태어나 1573년 궁중설교자로서 하이델베르크에 왔다가 1577년부터 노이슈타트(Neustadt)에서 목사와 교수로 섬기다가 1584년 다시 하이델베르크로 왔고, 1586년부터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로 일했다.

²¹ 사무엘 후버가 소개하는 ‘칼빈주의 신앙안에서 죽어가는 신자가 위로받아야 하는 칼빈주의 교리’(Calvinische Articul/ damit ein Christ/ der in dem Calvinischen Glauben absterben will/ sich trösten soll)에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지 않았다’(Christus ist nicht für alle Menschen gestorben)는 것이다. Samul Huber, *Gründliche Beweisung / Daß Christus Jesus gestorben sie / für die Sünden des gantzen menschlichen Geschlechts* (Tübingen, 1590) 참고.

라는 제목의 설교로 답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게 오셨고 그의 강림과 고난과 죽음으로 누가 위로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룬다.²² 예수는 처음부터 신자들의 소망이요 위로였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가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복음의 전체 위로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허망하게 만든다는 후버의 비판 때문이다.²³ 토사누스는 하이델베르크 신학자들의 교리가 새로운 교리나 교활한 지식 이 아니라, ‘복음적이며 건전하며 위로하는 옛 교리’(die alte Evangelische/gesunde und tröstliche lehr)라고 규정한다.

토사누스는 딸 시온 곧 교회가 기뻐하는 이유는, 왕 구주가 ‘유기자나 멸망자에게’가 아니라 ‘너에게’ 오시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기 백성, 곧 믿는 자이며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예정된 자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이 교리는 칼빈적이고 베자적인 해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된 교리라고 하였다. 신자들의 위로의 근거는 선택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며 위로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는 종종 많은 시험과 싸워야만 하지만 그리스도의 양들은 하나도 잃어버려질 수 없고, 하나님의 택자들이 타락된 채로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며 확신합니다.²⁴

토사누스에게는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특별하고 영원한 사랑에 의해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이 가장

²² Daniel Tossanus, *Drey Christliche Predigten*, (Heidelberg: Harnisch, 1591), 25: “Wem der Sohn Gottes gesandt sey / und welche sich seines Adverts / wie auch seines Leydens und Sterbens / zu trösten haben.”

²³ Tossanus, *Drey Christliche Predigten*, 28.

²⁴ Tossanus, *Drey Christliche Predigten*, 61: “Da freuen sich die Kinder Gottes und seind getrost/ daß ihre Nahmen im himme. Geschrieben seind. Unnd ob schon unser glaub schwach ist / unnd wir oft nie vielen anfechtungen zu kämpfen haben / wissen wir / und seind gewiß / daß der Schäflein Christi keines kann verloren werden / und unmöglich / daß die Außerwehlten Gottes verführt bleiben.”

큰 위로였다. 따라서 토사누스 사후에 출간된 예정론에 대한 책에서 그는 위로를 예정론의 사용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말하고 있다.²⁵ 이 위로는 구원의 확신과 연결되어 있다. 그는 예정교리가 우리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우리를 아주 많이 확고하게 하는데, 구원이 우리나라 다른 움직이는 원인에 달려있지 않고 영원하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많은 환난 앞에 그들이 설지라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 그래서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의 무서운 어둠과 흉한 격동을 그들이 볼지라도 그들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확신가운데서 신자는 의롭게 선다. 이 책은 이렇게 끝난다: ‘택자들은 이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며 두 바위, 구체적으로 육체의 안락과 불신을 피하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모든 구원을 오직 그의 은혜에 돌리며, 내적으로는 안전하고 견고한 닻처럼 그의 소망을 붙잡는다.’²⁶

3. 선택의 확신의 방식-아래로부터(*a posteriori*)

선택의 확신이 강조되는 것과 동시에 선택의 확신의 방식도 강조되었다. 그것은 ‘위로부터’(*a priori*)의 방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a posteriori*)의 방식이다. 렌네헤루스는 예정론을 다룰 때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절대로 위로부터 즉 선택의 기초나 처음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닫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래서부터, 즉 선택의 결과들

²⁵ Tossanus, *Doctrina De Praedestinatione* (Hanoviae: Claude de Marne & Johann Aubry, 1609), 44-45.

²⁶ Tossanus, *De Praedestinatione*, 47: “electi in enavigando mari huius mundi utrimque scpulum, Scyllam & Charybdin, videlicet securitatem carnalem & difidentiam vitant, dum serio se coram Deo humilliant, totamque salutem soli eius gratiae acceptam ferunt, & interim spem suam tanquam tutam & firmam anchoram obtinent.”

에서 선택과 구원의 확신을 잡아야 하고 얻어야 한다.²⁷ 1597년에 출판된 그의 책 *Scriptum didascalicum et apologeticum*에서 구원의 인식이 가장 비밀스런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통해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방식으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²⁸

토사누스도 선택의 확신은 수단들에서 발견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이것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위해서 단지 목적만이 아니라 수단들도 정하셨기 때문이다.²⁹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나 말씀 밖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아래로부터, 즉 복음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소명에서, 성령의 사역에서, 그리고 우리의 칭의에서 우리의 선택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³⁰

키메돈키우스도 확신의 방식에 있어서 ‘위로부터’(a priori)의 방식을 거절한다.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한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사변적으로 즉 위로부터 들어간다면 헤아릴 수 없는 깊음이 우리를 잡아채갈 것이라고 한다.³¹ 그래서 선택의 확신은 아래로부터(a posteriori) 있다. 키메돈키우스는 이것을 선택의 확신을 위한 삼중적 계시, 즉 선택의 결과들과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인치심을 말한다.³² 첫 번째는 선택의 결과들이다. 거

²⁷ Rennecherus, *Catena*, 162: “... ut de electione & salute nostra certi simus & eius fructum percipiamus, nequaquam a priore, nempe ab ipsis electionis causis & principiis, incipiendum erit. ... Sed a posteriore tanquam per electionis effecta, electionis & salutis certitudinem discere & percipere debemus.”

²⁸ Rennecherus, *Scriptum didascalicum et apologeticum* (Hanoviae: Guil. Antonius, 1597), 224: “... in hoc myterii capite minime ignorandum tibi est, quod salutaris eius cognitio a priore per caussas in secretissimo Dei consilio petenda non sit; ... illud sublime mysterium a posteriore per effecta tibi cognoscendum est ...”.

²⁹ Tossanus, *De ea parte Praedestinationis divinae*, Thesis 28: “... ad finm nimirum simul, & ad media praedestinati ...”.

³⁰ Tossanus, *De ea parte Praedestinationis divinae*, Thesis 29: “... ita neque coelum conscendere, neque arcana divina extra verbum rimari necesse est, sed ex posteriore, nempe ex vocatione Dei per ministrerium Evangelii, & operationem S.sancti, & ex nostra iutificatione certiores reddimur de nostra electione, certo statuentes, cum vere credimus in Christum, nos esse membra Christi, & electos Dei ...”.

³¹ Kimedoncius, *De redemptione*, 700: “Quod si spekulativ, & a priore ut loquuntur, ad aeternum Dei consilium de salute nostra penetrare tentemus, abyssus abripiet nos ...”.

³² Kimedoncius, *De redemptione*, 700: “Est autem triplex fere electionis revelation, nimirum per

기에는 그리스도를 참되고 살아있게 믿는 것이고, 칭의와 중생과 의를 향해 사는 것이 있다. 믿음과 회심은 결과적으로 선택의 특징이며, 거룩을 향한 노력은 우리의 선택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³³ 이것은 다시 두 번째 증거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연결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이 결론된다.³⁴ 세 번째 증거인 성령의 인치심은 모든 신자들에게 있다. 양자의 영이 중생할 때 양자됨을 인친다. 이것이 택자와 유기자에게 공통적인 것이 아니다. 성령에 의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그 마음의 경향이 나타나 있다. 이 고백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의 증거가 바로 같은 것,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귀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증거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증거하시는 은혜의 영(*Spiritus gratiae*)이다. 이 성령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키메돈키우스는 말한다.³⁵

키메돈키우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래서부터 확신하는 것이 칼빈과 루터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선택의 확신의 방식에 대해서 칼빈도 다루었기 때문에,³⁶ 칼빈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우리의 선택의 확신을 얻으려고 할 때, 저 아래의 증거들 안에서(*in iis signis posterioribus*) 견고히 있을 때에 가장 좋은 순서를 따르는 것이다. 그것들(아래의 증거들)은 그것(선택)의 확실한 증거들이다.”³⁷ 이렇게 키메돈키우스는 선택의 확신의

effecta ipsius electionis certissima, per verbum promissionis, & per oblationem spiritus sancti.”

³³ Kimerdoncius, *De redemptione*, 703.

³⁴ Kimerdoncius, *De redemptione*, 704: “Sub hac promissione universali assumat in animo quisquis doni Dei particeps est: Ego sum fidelis; & porro concludat: Ergo servabor, & per consequens sum electus.”

³⁵ Kimerdoncius, *De redemptione*, 711: “Hoc autem testimonio Spiritus nihil est firmius.”

³⁶ 칼빈은 기독교강요 3권 24장에서 선택의 확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키메돈키우스는 3절과 4절에서 이와 관련한 많은 내용을 직접인용하고 있다. 루터는 창세기 26장을 해설하면서 이 방식에 대해서 다룬다.

³⁷ Kimerdoncius, *De redemptione*, 712: “... optimum tenebimus ordinem si in quaerenda electionis nostrae certitudine, in iis signis posterioribus, quae sunt certae eius testificationes, haereamus.”-참고:

방법에서 ‘아래로부터’(a posteriori)의 방식을 진술하고 그것이 칼빈과 루터에게서도 발견된다고 함으로서 이 방식의 보편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4. ‘위로부터’(a priori)의 방식과 ‘아래로부터’(a posteriori)의 방식 구분

하인리히 헤페에 의하면 하이델베르크 구약교수였던 게오르기우스 소니우스(Georgius Sohnius, 1551~1589)는 독일 개혁신학의 예정론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학자이다. 헤페는 독일 개혁신학이 처음 멜랑히톤에게 있다가 후에 칼빈주의로 자리이동을 하였다고 주장한다.³⁸ 헤페에 의하면 이에 대한 중요한 증거는 소니우스가 처음으로 예정론에 있어서 ‘위로부터’(a priore)의 방식과 ‘아래로부터’(a posteriore)의 방식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초기 독일 개혁주의 교의학에서는 예정교리가 예정의 결과로부터 가르쳐졌다는 것과 다르다는 주장이다.³⁹ 이런 헤페의 의견은 개혁주의 예정론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주장이 되어 왔다. 따라서 게오르기우스 소니우스의 예정론에 대한 헤페의 평가가 옳은지 살펴보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다.

소니우스의 예정론은 신학의 방법(Methodus Theologiae)과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 해설(continens exegesis praecipuorum articuloꝝ Augustanae confessionis)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Synopsis totius Corporis doctrinae Philippi에서 멜랑히톤이 예정론을 Loci에서 진술한 것을 요약하고 있다. 소니우스가 가

Calvin, *Inst.* III. 24. 4.

³⁸ Heinrich Hepe, *Dogmatik des deutschen Protestantismus 2* (Gotha, 1857), 71-72.

³⁹ Hepe, *Dogmatik des deutschen Protestantismus*, 70: “... in der ursprünglichen deutschenreformierten Dogmatik gelehrt war, dass die Prädestinationslehre nur ab effectis praedestinationis aufzufassen sei, lehrte Sohnius jetzt ... modus tractationis et cognitionis huius doctrinae de praedestinatione duplex est, alter a priore, alter a posteriore, und rechtfertigte beide Betrachtungsweisen”.

장 자세히 예정론을 다루고 있는 곳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의 해설이다.

소니우스의 ‘신학의 방법’(*Methodus Theologiae*)에서 예정론을 칭의론 뒤에 다룬다. 소니우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정이 칭의와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해설에서도 예정론을 칭의론 뒤에 둔다. 왜냐하면 소명과 심판은 예정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칭의론 뒤에 예정론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의 교리는 ‘아래로부터의 모델’(a posteriori Modell)로서 간주되어지곤 했다. 그래서 그가 주로 위로와 확신을 의도했다고 한다.⁴⁰ 예정론의 위치만을 놓고 보면 그렇다.

그런데 그가 예정론을 해설할 때 가장 먼저 ‘위로부터의 방식을 따라’(secundum priorem modum) 다루고 있다. 즉 그의 예정론의 위치는 올라가는 방식이지만 그가 가장 먼저 해설하려고 한 방식은 내려가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예정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가지고서, 한 신학자의 예정론이 내려가는 방식인지 올라가는 방식인지를 결정짓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a priori)과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것(a posteriori)을 소니우스는 ‘예정에 대해 다루고 인식하는 방식’(modus tractationis & cognitionis de praedestinatione)에 대하여서 말할 때 사용하고 있다.⁴¹ 예정을 다루고 인식하는 방식이 이중적인데, 즉 위로부터 내려가는 것(a priori)과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것(a posteriori)이 있다. 내려간다는 것은 원인으로부터 결과로 간다는 것이고 올라간다는 것은 결과로부터 원인으로 간다는 것이다. 내려가는 것(a priori)은 바울이 첫째 구원의 기초로부터 결과 되어진 것들로 내려가는 에베소서 1:13-14가 예가 될 수 있다. 올라가는 것(a posteriori)은 칭의에서 예정으로 올라가는 로마서 8:30가 예가 된다. 내려가는 방식의 목적은 지식이고 올라가는 것의 목적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과 위로가 된다.⁴² 내려가는 것은 종합적(Synthetica)이고 올라

⁴⁰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II*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359-61.

⁴¹ Georgius Söhnius, *Operum II* (Herbornae Nassoviorum: corvin), 996.

가는 것은 분석적(*Analytica*)이다. 전자는 선택된 자들은 시간 속에서 믿는다고 말하고, 후자는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선택된 자였다고 말한다.

소니우스는 두 방식이 다 허락된다고 본다. 그런데 이렇게 두 방식을 다 인정하는 것이 헤폐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둘 다 인정하는 것이 독일신학자 중 처음인데, 이것이 소니우스의 초기 방식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이다. 헤폐는 소니우스가 처음에는 멜랑히톤의 예정론을 완전히 똑같이 가르쳤는데 후에 예정의 이해에 있어서 변화를 겪고 절대적 예정론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 증거는 소니우스가 초기에 내놓은 그의 책 *Synopsis totius Corporis doctrinae Philippi*에서 멜랑히톤의 주장을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는 반면,⁴³ 후기 작품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방식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⁴⁴ 헤폐의 이 주장은 다음의 네 가지 오류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

첫째, 헤폐는 소니우스가 *Synopsis*에서 멜랑히톤의 *Loci*를 요약한 것이 소니우스 개인의 주장처럼 인용하고 있다. 헤폐는 소니우스의 논제 4, 9, 11, 12, 16, 19, 20을 그대로 인용하고 이것이 멜랑히톤의 글과 거의 비슷한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헤폐가 소니우스의 *Synopsis*의 의도를 고의적으로 간과한 듯한 인상을 준다. 왜냐하면 이 책의 의도는 멜랑히톤의 *Loci*의 요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정교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리들이 멜랑히톤의 *Loci*의 요약이요 인용이다. 소니우스가 멜랑히톤의 *Loci*를 요약하여 출판한 것이 멜랑히톤의 영향력의 증거는 될 수 있으나, 소니우스가 멜랑히톤의 의견에 완전히 동의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둘째, 헤폐의 주장을 조금 양보해서, 소니우스가 멜랑히톤의 *Loci*를 요약한 것 자체가 멜랑히톤의 내용에 전폭적으로 동의한 증거라고 이해하여도 문제는 남는다. 왜냐하면 소니우스는 서문에서 멜랑히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면서도, 멜랑히톤의 자유의지와 예정에 대해서 초기 작품

⁴² Sohnius, *Operum II*, 997. “... finis prioris illius modi est scientia : huius autem posterioris est confirmatio in fide & consolatione.”

⁴³ Hepe, *Dogmatik des deutschen Protestantismus*, 65-66.

⁴⁴ Hepe, *Dogmatik des deutschen Protestantismus*, 70.

이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또 성만찬에 대해서는 후기 작품이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언급한다.⁴⁵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요약본을 사용했던 1582년 마부르크에서 멜랑히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멜랑히톤의 *Loci*보다 성경과 선지자와 사도들에게서부터 논제들이 모아지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어떤 이가 말한다면, 소니우스는 자신은 언급한 수업시간에-즉 1582년의 멜랑히톤의 요약본을 사용했던 수업시간에-이미 성경과 선지자와 사도들로부터 가르쳤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논제들을 성경의 명제를 따라서 토론을 진행했다고 말한다.⁴⁶ 이런 언급은 그가 멜랑히톤을 존경하였고 강조했을지라도, 성경을 중심으로 한 자신만의 해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⁷

셋째, 헤페의 주장에는 멜랑히톤의 *Loci*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 예정론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이 전제는 오류가 있다. 왜냐하면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교리학교재로서 멜랑히톤의 *Loci*를 사용하면서도⁴⁸ 하이델베르크 신학자들은 초기부터 선택과 유기를 포함하는 절대적 예정론을 가르쳤기 때문이다.⁴⁹ 즉 멜랑히톤의 *Loci*를 사용

⁴⁵ Sohnius, *Operum II*, 8: “De libero arbitrio, de praedestinatione, & de sacramento Coenae, si quid vel minus explicite vel minus commode convenienterque alicubi dictum videtur, ex alius eiusdem auctoris scriptis, atque illud quidem ex prioribus, hoc ex posterioribus explicari & declarari potest atque debet.”

⁴⁶ Sohnius, *Operum II*, 8-9: “Si quis dicat, ex Bibliis seu libris Prophetis & Apostolicis, Theses potius sumendas fuisse. Resp. I. Id a me iam ante in eadem privata Schola factum esse. II. Has Theses ad normam Scripturae Sacrae inter disputandum examinatas esse.”

⁴⁷ Lee, *Die Prädestinationslehre*, 60.

⁴⁸ 하이델베르크대학은 오토하인리히에 의해서 행해진 대학의 개혁시기(1556년 4월)부터 멜랑히톤의 *Loci*를 교리학교재로 사용했으며 1602년부터는 팔쯔정부의 제안에 따라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주로 사용하였다. E. Winkelmann, *Urkundenbuch der Universitaet Heidelberg I* (Heidelberg: Carl Winters Universitaetsbuchhandlung), 351.

⁴⁹ 스트라스부르크의 예정론 논쟁시(1561-1563)에 하이델베르크 신학자들은 쟁키우스의 의견에 동의를 표현함으로써 이중예정론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W. Neuser, “Dogma und Bekenntnis in der Reformation. Von Zwingli und Calvin bis zur Synode von Westminster”, in: Andresen, Carl(편), *Handbuch der Dogmen und Theologiegeschichte Bd. 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9), 165-352: “Die Durchsicht der Gutachten ergibt, dass die von ihm vertretene doppelte Prädestination zu dieser Zeit in Marburg, Heidelberg und Schaffhausen Bestandteil der Lehre ist.”

한 것이 절대적 예정론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 없다. 또한 절대적 예정론을 주장한 것이 독일 개혁신학의 후기의 것이라는 것도 맞지 않는다.

넷째, 헤페의 주장에는 멜랑히톤은 *a posteriori* 모델을 주장했으나, 칼 빈과 그의 후예들은 *a priori* 모델을 가르쳤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우리가 이 주장을 다루기 위해서는 *a priori*와 *a posteriori*에 대한 세 가지 사용을 구분해야만 한다.⁵⁰ 첫 번째 사용은 예정과 구원의 기원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개혁신학은 예정이나 구원은 실질적으로 아래서부터(*a posteriori*)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a priori*) 내려온다고 항상 주장하였다. 두 번째 사용은 선택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이다. 개혁신학은 선택과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아래서부터(*a posteriori*)라고 항상 주장해왔다. 세 번째 사용은 예정론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내려가는 방식으로 다루는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다루는가에 대한 것이다. 전자는 선택된 자는 믿는다라고, 후자는 믿는 자는 선택된 자다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소니우스가 두 방식을 인정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세 번째 사용에 대한 것이다. 이런 방식의 사용이 지금 소니우스에게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 구별이 필요한 이유는 때때로 선택의 확신의 방식에 대하여 설명한 개념의 ‘아래로부터’(*a posteriori*)를 마치 예정론의 전체적인 이해로서 아래로부터의 방식으로 생각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한 예정론자로 알려져 있고, 예정을 위로부터의 방식으로 다룬다고 항상 언급되는 베자의 경우도 구원의 확신의 방식에 대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베자도 멜랑히톤에 동의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시련 중에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롭고 변치 않는 선택 안에 있다. 그것을 우리는 비밀스럽고 찾지 못할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a posteriori*), 즉 소명의 결과인 믿음으로부터 된다.”⁵¹ 16세기 말에도 다루는 방식으로서 두 방식, 즉 위로부터와 아래

⁵⁰ Lee, *Die Prädestinationslehre*, 60.

로부터가 인정되나 선택의 확신은 아래로부터가 된다는 것이 다니엘 토사누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⁵² 따라서 구원과 선택의 방식으로 ‘아래로부터’를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정론을 다루는 방식으로서 ‘아래로부터’만을 고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소니우스가 이렇게 다루는 방식으로서 두 가지 방식을 다 말한 것이 소니우스의 신학적 변화라고 규정하기 힘들다.

덧붙이자면 예정론의 위치-즉 어디에 예정론이 위치에 있는가, 앞쪽의 신론인가 아니면 뒤쪽의 구원론이나 교회론인가-로 ‘위로부터’인지 ‘아래로부터’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소니우스에게서 보여지는 것처럼 예정론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 혹은 가르칠 것인가가 16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개념이었다.

5. 교회에서 예정론이 전달되는 방식에 대한 제안

토사누스도 예정론을 다루는 방식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다. 그는 게오르기우스 소니우스처럼 두 가지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 다만 위로부터의 방식을 종합적인 것이라고 하고, 아래서부터의 분석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이 둘은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종합적인 것은 학교와 학자들에게 어울리는 방식인 반면 분석적인 것은 교회와 일반인에게 유익하다고 하였다. 즉 교회 회중에게는 분석적 방식, 즉 아래로부터의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유익하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⁵¹ Beza, *De Haereticis a ciuili Magistratu puniendis Libellus, aduersus Martini Bellii farraginen, & novorum Academicorum sectam* (Frankfurt a.M., 1973), 54: “Alle Hoffnung in unseren Anfechtungen besteht in der gnädigen und unwandelbaren Erwählung Gottes, welche wir freilich nicht im geheimen und unerforschlichen Urteil Gottes suchen, sondern *a posteriori*, das heißt aus dem Glauben, der eine Wirkung der Berufung in uns ist, erschließen.” 번역인용 Mahlmann, “Melancthon als Vorläufer des Wittenberger Kryptocalvinismus,” in Frank, Günter/Selderhuis, Herman J. (편), *Melancthon und der Calvinismus* (Stuttgart, 2005), 217.

⁵² Tossanus, *de ea parte*, Thesis 29: “Atque ita neque coelum conscendere, neque arcane divina extra verbum rimari necesse est, sed ex posteriore ...”; Tossanus, *de Praedestinatione*, 21.

이런 아래로부터의 방식은 지식이 적은 자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일 뿐 아니라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예정론에 틀림없이 다다르게 되는 경로가 된다. 즉 인간은 가장 먼저 자신의 비참함을 이해하고, 그 다음 자기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되는 하나님의 자비를 본다. 그리고 학습자(κατηχουμενος)는 믿음의 열매와 표시로 이끌려져야만 하며, 동시에 다양한 유혹과 고난들이 그에게 알려져야 한다. 이때 예정교리의 필요성이 바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혼란한 인간의 큰 무리로부터 이렇게 작은 무리가 믿으며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있게 된 것인지 경건한 마음은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떻게 그렇게 작은 믿음의 무리가 그런 사단의 계략과 세상의 미움과 핍박 안에서 상존할 수 있는지 생각할 것이다.’⁵³ 이런 증거들은 토사누스가 교회에서 예정론을 가르치는 방식으로서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a posteriori*)을 선호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방식을 도르트회의에 팔츠교회의 총대로서 참석했던 하이델베르그의 신학자들이 제안하였다. 장기간의 회의가 끝나갈 무렵 각 총대들은 자기 지역의 판단문을 제출했어야 했다. 팔츠의 총대들은 첫째 항목에 대한 판단문을 낭독한 후 ‘예정교리가 대중들에게 가르쳐져야 하는 방식’(*Modus docendi populariter doctrinam de Praedestinatione*)을 제안하였다.⁵⁴ 이 방식은 하이델베르그 신학자들의 특징인 예정교리에 대한 실천적 이해를 보여준다. 이 방식은 전형적인 *a posteriori*의 방식이며 여기서 위로와 확신을 강조하고 있다. 선택이란 단어는 일곱째 논지에서야 나타나고 있다. 이런 구조, 즉 죄와 하나님의 진노-복음-믿음-선택-확신의 구조는 도르트신경의 첫 번째 항목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⁵⁵

⁵³ Tossanus, *de Praedestinatione*, 26: “Nam statim cogitabit pia mens, unde fiat, quod es tam magna hominum turba tam pauci vere credunt & perseverant ad finem. Item quomodo tam exiguus coetus credentium inter tot in sidias Diaboli, odia & persecutiones mundi consistere possint.”

⁵⁴ “Iudicia Theologorum Exterorum De Quinque Controversiis Remonstrantium Articulis, Synodo Dordrechtanae exhibita. Anno 1619”, in: *ACTA Synodi Nationalis, In nomine Domini nostri IESU CHRISTI, Autoritate DD.Ordinum Generalium Foederati Belgii Provinciarum, Dordrechtii Habitae Anno 1618 et 1619* (Dordrecht 1620), 23.

⁵⁵ Lee, *Die Prädestinationslehre*, 183.

하이델베르그신학자들이 제안한 대중들을 위한 예정론을 가르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께서 첫 부모의 무서운 타락 후에, 인간들과 또한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불로 심판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자기의 은혜를 인간들에게 약속하셨다. 자기의 손상되지 않은 의를 저들에게 성취하실 수 있도록, 자기의 독생자를 중보자로서 약속하셨는데,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을 하시고, 그의 죽음으로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하셨다.⁵⁶
2.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말씀 안에서 선포될 때에 인간들에게 제공하시고 진지하게 말기셔서 복음을 듣는 자마다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⁵⁷
3. 그러나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하여 부패하여서 복음의 설교를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를 이끄시고 루디아에게서처럼 그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여넣는 것밖에 없다.⁵⁸
4.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이지 않는데 시편 147편 마지막절과 사도행전 16장 7절에 기록된 것과 같다. 그러나 또한 복음에 대한 이해와 순종, 혹은 내가 말씀으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기록된 것과 같다.⁵⁹
5. 어떤 인간도 자신에게 이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도록 일

⁵⁶ Iudicia, 23: “Deum post horrendum lapsum primorum parentum, homines aequae, ac qui peccarunt Angelos, igni aeterno adiudicare potuisse. Verum id non fecisse: sed suam hominibus gratiam pollicitum fuisse. Quam ut salva iustitia sua praestare illis posset, unigenitum Filium suum promississe Mediatorem, qui pro peccatis nostris victima fieret, & morte sua nos ab aeterna morte liberaret.”

⁵⁷ Iudicia, 23: “Hunc Filium, in Verbo praedicato Deum hominibus offerre, serioque mandare, ut quotquot Evangelium audiunt, ad Christum se convertant.”

⁵⁸ Iudicia, 23: “Sed hominem per lapsum propter peccata, ita corruptum esse, ut concionem Evangelii nec intelligere, nec si intelligat, admittere possit, nisi Deus illum per Spiritum trahat, & cor eius, ut Lydiae, aperiat, Christique amorem inspiret.”

⁵⁹ Iudicia, 23: “Itaque non solum Evangelium esse singulare Dei donum, non omnibus populis commune, sicut scriptum est Psal. 147. Vers. Ult. Actor. 16.7. Sed etiam intelligentiam & obedientiam Evangelii, vel, ut verbo dicam, Fidem esse singulare Dei donum, sicut scriptum est Ephes. 2.8. 2.Thess.3.2.”

하여 얻을 수 없다.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롬 3:23. 더구나 인간이 믿음을 얻을 수 없고 자신을 믿음에 세울 수 없고 선한 영의 작은 열망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죄안에서 죽었기 때문이고, 엡 2:1, 정확히 모든 참된 선한 감각이 없다.⁶⁰

6.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수한 은혜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그가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 롬 9:18.⁶¹
7.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자기에게 타락한 인류로부터 특정한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서 택하셨다. 그들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도록 그리스도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세상에서 내게 당신이 주셨던 자들이 당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은 선택의 열매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기록되었으니, 택함받은 자들은 얻었고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롬 11:7. 그리고 영생으로 정해진 자들마다 믿었다. 행 13:48. 또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아무에게도 어떤 것도 빚지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자유로운 의지와 은혜로서 이자를 저 앞에서 불쌍히 여기서 그를 믿음을 통해 구원받도록 그리스도에게 주기로 결정하셨다.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그것을 당신이 기뻐하였나이다.⁶²
8. 이 선택이 그렇게 견고하여서, 성도들이 종종 심하게 미끄러질지라도 저들의 실패와 저들의 타락에도 분리되거나 깨어질 수 없다. 그렇게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 그의 인을 가지사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아신다. 딤후 2:19.⁶³

⁶⁰ Iudicia 23: “Nec posse quemquam hominum mereri, ut sibi hoc donum a Deo detur: siquidem omnes sunt peccatores, Rom.3.23. Quin tantum abesse, ut homo mereri fidem possit, ut nec disponere se ad credendum, nec boni spiritualis vel minimi cupiditatem habere queat, quippe in peccato mortuus, Ephes.2.1. adeoque omni veri boni sensu destitutus.”

⁶¹ Iudicia 23: “Deum igitur ex mera gratia, donum fidei dare cui vult: sicut scriptum est, Rom.9.18.”

⁶² Iudicia 23: “Eundem Deum, ab aeterno sibi ex genere humano lapsu, certos homines, quasi in peculium suum, elegisse, quos vellet per fidem Christo servandos dare: sicut scriptum est Ioh. 17.6. Tui erant quos dedisti mihi e mundo. Unde clarum sit, Fidem electionis fructum esse, Sicut Scriptum est, Electio assecuta est, reliqui occalluerunt, Rom.11.7. Et, Crediderunt quotquot ordinati erant ad vitam aeternam. Actor.13.48. Clarum item, causam electionis esse beneplacitum Dei, qui nemini quicquam debens, liberrima voluntate ac gratia huius prae illo misereri, eumque Christo per fidem servandum dare decrevit: sicut scriptum est Matth.11, Etiam Pater, quia ita placuit tibi.”

⁶³ Iudicia 23: “Hanc Electionem ita firmam esse, ut quamlibet graviter saepe labantur Sancti,

9. 각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선택의 확실함에 대해서 확신해야 한다. 그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 결정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의 숨겨진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시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니다(왜냐하면 그것은 숨기워졌고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생명의 책은 봉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올라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친다. 엡1장 4절.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 외에 다르게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회심하여 우리에게 소개된 구원자를 믿을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것을 행한 자는 가장 확실한 선택의 증거를 갖는다.⁶⁴
10.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원하셨으니, 육체의 안전으로 우리가 미끄러져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경외와 떨림 가운데서 우리가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가르친다.⁶⁵
11. 이 떨림과 함께 분명히 저 위로가 연결되어 있다. 능력을 넘어 시험받도록 두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고전 10장 1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꺾겨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이사야42장 3절. 이런 경외와 떨림이 모든 위로의 저 충만한 신학의 실천의 논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마음의 가장 큰 두려움 안에서 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택자들은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선택되었다. 따라서 나는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역시: 그리스도의 양은 하나도 그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양이다 나의 목자를 내가 알며, 그를 내가 사랑하며

tamen nec defectibus nec lapsibus illorum interrumpi, multo minus abrumpi possit. Sicut scriptum est; Solidum stat fundamentum Dei, habens sigillum hoc, Dominus novit, qui sint sui. 2.Tim, 2.19.”

⁶⁴ Iudicia 23-24: “Caeterum de Electionis suae certitudine quemque Christianum certum esse debere. Ut autem certus esse possit, non esse, cur in abditos divinae sapientiae recessus conetur perumpere, ut intelligat, quid de se sit constitutum in caelis (hoc enim & veritum & impossibile est, siquidem liber vitae est obsignatus. 2.Tim.2) sed firmiter adhaerendum verbo Dei patefacto. Quod docet, Deum nos elegisse in Christo. Ephes.1.4. Hoc est, non aliter decrevisse salvare, nisi per Christum: & severe mandat, ut respiscamus, & credamus in propositum nobis Servatorem. Quod qui facit, is certissimum electionis suae habet testimonium.”

⁶⁵ Iudicia 24: “Idcirco autem hoc, & non alio modo, Deum Electionis nostrae certitudinem nobis patefacere velle, ne in securitatem carnalem prolabamur, sed cum timore ac tremore salutem nostram operemur, sicut praecipit Aost. Philip. 2.12.”

그를 내가 믿으며 그를 위해 내가 살며 그를 위해 내가 죽는다.
따라서 나는 나의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며 행복하다. 나는 바울의
것을 반복한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⁶⁶

6. 도르트 신조의 입장

제베르그(Seeberg)는 도르트 회의의 결정의 의미는 예정론의 자리의 변화에 있다고 주장한다. “도르트의 결정은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본래의 사상구조의 변경을 뜻한다. 예정은 구원의 확신의 한 버팀목이었는데 지금은 근본사상으로 올라갔다. 그 전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즉 칭의에서 예정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위에서 아래로 즉 예정에서 칭의로 내려온다.”⁶⁷ 제베르그는 예정론의 자리가 a posteriori에서 a priori로 변화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가 사상구조의 변경을 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한 논의를 통해서 도르트 신조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고찰하면서 제베르그의 주장을 평가해 보도록 하자.

하이델베르그 신학자들의 도르트 회의에서의 영향력은 이 회의의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도르트 신경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도르트 회의의 의장 요하네스 보거만(Johannes Bogermann)은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인물이다. 그는 의장으로서 1619년 3월 22일 첫

⁶⁶ Iudicia 24: “Cum hoc timore certo coniunctam esse consolationem illam, fidelem esse Deum, qui non patiatur nos tentari supra vires, 1.Cor.10.13.nec frangat arundinem quassatam, aut linum fumigans estinguat, Esaiae 42.3. Cum hoc timore & tremore coniunctam fore illam omnis consolationis plenissimam Theologiae practicae logicam, etiam in maximis animi angoribus exercendam; Electi non seducentur: Ego electus sum : igitur nunquam seducar. Item: Oves Christi nemo rapiet de ipsius manu. Ego Christi Ovis sum: novi enim pastorem meum, hunc amo, huic credo, huic vivam, huic moriar. Igitur securus, & laetus sum in Deo meo, & ingemino illud Pauli; Quis me separabit a caritate Christi?”

⁶⁷ R. Seeberg, *Lehrbuch der Dogmengeschichte II* (Erlangen und Leipzig, 1898), 415: “Die Beschlüsse von Dordrecht bedeuten aber eine Verschiebung des ursprünglichen Gedankengefüges in der Heilslehre. Einst war die Prädestination eine Stütze der Heilsgewissheit, jetzt ist sie zum Grundgedanken erhoben. Einst stieg man von unten nach oben: von der Rechtfertigung zur Prädestination, jetzt von oben nach unten: Von der Prädestination zur Rechtfertigung.”

번째 신경의 내용을 낭독했다. 이것이 보거만의 손에서 독단적으로 생성된 거라는 이유로 거친 반대가 있었다. 의장이 낭독한 내용에 만족했던 스클테투스(Scultetus)와 루베르투스(Lubbertus)는 신경의 작성이 의장 보거만의 손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회의는 합의를 위해 신경작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의장과 두명의 보좌관과 칼레톤(Carleton), 스클테투스, 데오다투스(Deodatus), 폴리안더(Polyander), 발레우스(Walaeus), 트리그란트(Trigland)로 이루어졌다. 보거만이 작성한 내용들은 위원회를 통해 검토되었고 변경되었으나 근본적으로 바뀐 내용은 없었다.⁶⁸ 신경작성에서 보거만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건덕과 교회의 평화였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신학자들도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강조하였다. 특히 보거만은 하이델베르그 신학자들이 작성한 예정교리에 대해 대중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도르트 신경과 하이델베르그 신학자들이 제안한 내용이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⁶⁹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죄와 하나님의 진노-복음-믿음-선택-확신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즉, 도르트 신경의 진술순서를 따르면: 모든 인간이 범죄하여서 저주 아래 있고(1항);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고(2항); 인간이 믿도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고(3항);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4항);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5항); 이 선물을 받고 받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영원의 작정에 달려 있다(6항);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일정한 수를 정하셨는데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7항); 선택은 인간의 믿음이나 선행의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선택의 결과이다(9항);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선택의 유일한 원인이다(10항); 구원의 확신은 열매로서 된다(12항); 확신은 겸손과 감사와 사랑을 가져온다(13항); 이 선택교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위로를 위해 있다(14항) 등. 이렇게 도르트신경은 선택으로 부터 시작하지 않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

⁶⁸ Dijk, *De Strijd over Infra-en Supralapsarisme in de Gereformeerde Kerken Van Nederland* (Kampen 1912), 169.

⁶⁹ Dijk, *De Strijd*, 171.

랑과 함께 시작하고 선택보다 믿음을 먼저 설명하여서 분명한 ‘아래로부터’(a posteriori)의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제베르그의 주장은 위에서 본 글이 제안한 ‘위로부터’의 방식(a priori)과 ‘아래로부터’의 방식(a posteriori)의 세 가지 구별을 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이다. 도르트 회의는 구원이 실제적으로 아래서부터(a posteriori)라는 항론파의 주장을 정죄한 것이지, 예정론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아래서부터의 방식을 정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도르트 신조는 예정론을 아래서부터(a posteriori)의 방식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도르트신경에 참여했던 초기 정통주의라 불리는 학자들도 전통과 분리된 방식으로 예정론을 다루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7. 결 론

16세기 말 하이델베르그 대학은 예정론논쟁에 깊게 관련되어 있었다. 하이델베르그 신학자들은 신자들의 위로와 구원의 확신의 중요한 근거로서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고 있다. 예정론을 다루는 방식으로 ‘위로부터’(a priori)의 방식과 ‘아래로부터’(a posteriori)의 방식을 구분하고 둘 다 인정하였다. 다만 대중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아래로부터’의 방식을 제안하였다. 도르트 신경도 ‘아래로부터’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둘 모두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개혁신학 내에서 예정론의 이해가 변했다거나 도르트 회의를 통해 예정론의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주장들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래로부터’의 방식과 ‘위로부터’의 방식의 세 가지 사용을 구별하여 이해할 때 도르트 회의는 개혁신학의 전통을 깬 분기점이 아니라 연속성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차 자료

“Iudicia Theologorum Exterorum De Quinque Controversis Remonstrantium Articulis, Synodo Dordrechtanae exhibita. Anno 1619,” In *ACTA Synodi Nationalis, In nomine Domini nostri IESU CHRISTI, Autoritate DD.Ordinum Generalium Foederati Belgii Provinciarum, Dordrechtii Habitaе Anno 1618 et 1619*. Dordrecht, 1620.

Beza. *De Haereticis a ciuili Magistratu puniendis Libellus, aduersus Martini Bellii farraginen, & novorum Academicorum sectam*. Oliva, 1554. — 재인쇄. Frankfurt a. M., 1973.

Heshus, Tilemann. *De praesentia corporis Christi in Coena Domini*. Jena, 1560.

Huber, Samuel. *Gründliche Beweisung / Daß Christus Jesus gestorben seie / für die Sünden des gantzen menschlichen Geschlechts*. Tübingen, 1590.

Kimedoncius, Jacob. *De redemptione generis humani Libri tres: Quibus copiose traditur controversia, de redemptionis et gratiae per Christum universalitate, et morte ipsius pro omnibus. Accessit tractatio finitima de Divina Praedestinatione, uno libro comprehensa*. Heidelberg: Smesmannus, 1592.

Rennecherus, Herman. *Aurea Salutis Catena*. Herborn: Christoph Corvin, 1589.

_____. *Scriptum didascalicum et apologeticum*. Hanoviae: Guil. Antonius, 1597.

Sohnius, Georgius. *Operum Georgii Sohnii, Sacrae Theologiae Doctoris, Tomus Secundus; Continens Exegesisin Praecipuorum Articulorum Augustanae Confessionis*. Herborn, 1591.

Tossanus, Daniel. *De ea parte praedestinationis*. Heidelberg, 1586.

_____. *Drey Christliche Predigten*. Heidelberg: Josua Harnisch, 1591.

_____. *Doctrina De Praedestinatione*. Hanoviae, 1609.

Winkelmann, Eduard. (Ed.). *Urkundenbuch der Universitaet Heidelberg I*. Heidelberg: Carl Winters Universitaetsbuchhandlung, 1886.

Zanchi, Girolamo. *Operum Theologicorum VII*. Geneva, 1613.

2차 자료

Adam, Gottfried. *Der Streit um die Prädestination im ausgehenden 16.Jahrhundert, Eine Untersuchung zu den Entwürfen von Samuel Huber und Aegidius Hunnius*. Neukirchen-Vluyn, 1970.

Bavinck, Herman. *Reformed Dogmatics II.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Dijk, Klaas. *De Strijd over Infra-en Supralapsarisme in de Gereformeerde Kerken Van Nederland*. Kampen, 1912.

Heppe, Heinrich. *Dogmatik des deutschen Protestantismus 2*. Gotha, 1857.

Lee, Nam Kyu. *Die Prädestinationslehre der Heidelberger Theologen 1583-1622 (Reformed Historical Theology 10)*.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2009.

Mahlmann, Theodor. “Melanchthon als Vorläufiger des Wittenberger Krytocalvinismus”. In Günter Frank/Herman J. Selderhuis (Ed.). *Melanchthon un der Calvinismus*. Stuttgart-Bad Cannstatt: Friedrich Frommann Verlag, 2005, 173-230.

Neuser, Wilhelm. “Dogma und Bekenntnis in der Reformation”. In Carl Andresen. (Ed.). *Handbuch der Dogmen-und Theologiegeschichte 2*.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88, 165-352.

Schweizer, Alexander. *Die Protestantischen Centraldogmen*. Zürich: Bei Orell, Fuessel und Comp, 1854.

Seeberg, Reinhold. *Lehrbuch der Dogmengeschichte II*. Erlangen und Leipzig, 1898.

Abstract

Die Grundlage für Trost und Gewissheit – praedestinatio Dei: die Prädestinationslehre der Heidelberger Theologen im 16. Jahrhundert

Lee, Nam-Kyu

Es gibt eine Ansicht, dass, am Anfang, die reformierte Prädestinationslehre am a posteriori Modell stand und später zum a priori Modell überging. Das a posteriori Modell steigt vom den bewirkten Dingen, z.B. der Berufung, dem Glauben und der Rechtfertigung, zum ersten Grund, d.h. der Erwählung Gottes hinauf, während das a priori Modell vom ersten Grund zu den dadurch bewirkten Dingen hinabsteigt. Das Ziel vom a posteriori Modell ist die Festigung im Glauben und im Trost, während das vom a priori Modell das Wissen ist. Die Ansicht behauptet daher, dass die reformierte Prädestinationslehre anfangs praktisch doch später spekulativ war. Nach der Ansicht war der Wendepunkt die Synode von Dordrecht.

Durch diesen Artikel wird behauptet, dass wir uns die dreifache Verwendung der Begriffe a priori oder a posteriori bewusst machen. Erstens, die Erwählung beginnt tatsächlich a priori. Zweitens, die Gewissheit der Erwählung und des Heils wird nur a posteriori gewonnen. Drittens, was die Behandlung der Prädestinationslehre betrifft, sind die beiden Modelle a priori und a posteriori gleichermaßen gültig. Nach der Unterscheidung der dreifachen Verwendung sucht dieser Artikel, ob die Synode von Dordrecht die Änderung der Stellung der Prädestinationslehre

bedeutet.

Zu diesem Zweck und wegen der Wichtigkeit der Universität Heidelberg und der Rolle ihrer Theologen im 16. und 17. Jahrhundert wird ihre Prädestinationslehre behandelt. Dieser Artikel bestätigt, dass die Heidelberger Theologen diese Lehre nicht als spekulatives Modethema ansahen, sondern als die Grundlage für Trost und Gewissheit. Die Dordrechter Canones folgen auch dem a posteriori Modell zur Erbauung der Gläubigen und betonen den Trost und die Heilsgewissheit.

Key-Words : Heidelberg, Canons of Dort, Doctrine of Predestination, Comfort